

孝明世子 冊封儀禮의 服飾에 관한 研究

유 송 옥

한국궁중복식연구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I. 序 論

II. 時代的 背景

III. 孝明世子の 冊封儀式 및 節次

IV. 冊封儀式에 나타난 身分別 服飾

V. 結 論

참고문헌

Abstract

1. 序 論

조선시대에는 왕이 王世子를 책봉(冊封)하여 왕의 사후나 유고시에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¹⁾

조선시대 왕세자를 비롯하여 王世孫, 王世弟, 王妃, 王世子嬪의 책봉에 관한 의궤(儀軌)는 31건의 기록이 규장각(奎章閣)에 있으며, 그 중 왕세자 冊封에 대한 現存하는 기록은 총 11건의 儀軌記錄이 있다.²⁾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책봉이 있었으나 그 기록은 임란(壬亂)을 전후해 소실(燒失)된 것으로 보인다.³⁾

왕세자 책봉은 國本을 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호(位號)를 定하는 것은 民心을 正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에 따른 儀禮도 성대히 행하였다. 따라서 왕권을 繼承하고 보전하는데 중요한 존재였던 왕

1) song-ok Ryu(1997). A study on the costume of crown prince at the designation ceremony in chosun dynast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stume. 7, 29-31.

2) 慎鍾度(1983).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解題, 서울大學敎圖書館, 史部, p.75.

3) 劉頌玉(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1.

세자의 책봉은 나라의 큰 儀式으로서 이러한 慶事를 記錄하고 보존함으로써 後代에 길이 알리고 국가의 안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왕세자를 책봉하고자 할 때는 행사를 주관하는 임시 관청인 책례도감이 설치되었고 행사 이후에는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를 제작하여 행사에 관한 전말과 의전문제를 모두 기록하였다.⁴⁾

이러한 왕세자의 책봉절차(冊封節次)를 수록한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孝明世子冊禮都監儀軌)는 귀중한 資料로, 이를 중심으로 책봉의례(冊封儀禮)의 복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時代的 背景

효명세자(순조 9년; 1809~순조 30년; 1830)는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의 세자이다. 이름은 영(昞: 원래의 음은 대이나 영으로 부르도록 정하였음), 자는 덕인(德寅), 호는 경헌(敬軒)이다. 어머니는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金氏)이다. 순조 12년인 1812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19년 영돈녕부사 조만영(趙萬永)의 딸인 풍양조씨(豐穰趙氏)를 맞아들여 가례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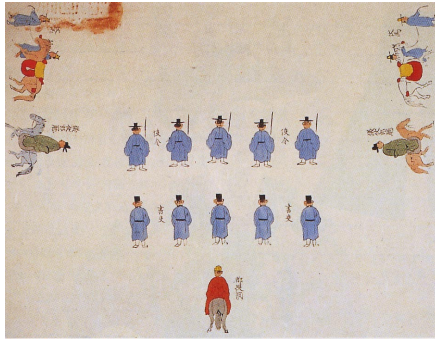
1827년 부왕인 순조의 명령으로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면서 어진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형욕을 신중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의 구현에 노력하였으나 불행히도 대리청정을 수행한 지 4년 만에 승하하였다. 그 후 그의 아들 헌종이 즉위한 뒤 왕으로 추존되어 익종(翼宗)이라 하였다.⁵⁾ 그리고 광무 3년(1899)에 익종은 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III. 孝明世子の 冊封儀式 및 節次

朝鮮의 王世子를 冊封하는 過程은 王世子를 冊封하기 전에 中國에 冊封使를

4) 朴銀順(1993), 조선시대왕세자책례의궤판차도연구, 한국문화, 14, p.554.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429.



〈그림 1〉 효명세자 책례도감의례반차도에 보이는 도제조의 조복과 오장차비의 녹단령

보내어 미리 알리고, 中國에서는 王世子로 冊封한다는 勅書를 冊封使가 가지고 왔다. 따라서 勅書를 가지고 오는 冊封使를 朝鮮王朝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純祖 12年 12月 16日의 實錄에서 보면, 慕華館에 나아가 勅使를 맞이하고 仁政殿으로 나아가 勅書를 받고서 곧바로 宴禮를 행하고 勅使를 傳送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⁶⁾

대개 행사에 대한 논의는 왕의 傳敎 또는 議政府나 禮曹의 관원이 올린 상소로부터 시작된다. 행사여부가 결정되면 왕은 날짜와 장소 등을 대략 지시한다. 인사를 담당하는 吏曹에서 올린 單子를 통해 都提調, 提調, 郎廳이 임명되면 이들이 회동하여 도감을 설치하고 都監事目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 결정된다.

행사시에 사용되는 여러 물품은 새로 제작하기도 하고 전에 사용했던 것을 수리하여 다시 쓰기도 하는데 이 업무는 一房, 二房, 三房으로 나누어 관장하였다.

책례 正日이 되기 전 吉日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정일이 되면 정전(正殿)에서 종친과 文武百官이 참석한 가운데 冊封禮가 치러진다. 임금의 敎旨인 敎命文이 선포되고 受冊封者인 왕세자는 교명함(敎命函)을 받아 물러난다. 이어지는 受冊禮는 수책자가 거처하는 건물에서 행해지는데 敎命과 함께 옮겨진 竹冊과 玉印을 왕명을 받든 使者로부터 수책자가 받는

6) 純祖實錄, 12年, 12月, 12日條.

의식이다. 이로서 책례의 전 과정은 끝나고 이튿날에는 진하례(陳賀禮)가 거행된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왕에게 진하(陳賀)하는데 이 경사를 백성에게 布告하고 頒敎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 백관은 수책자에게 하례를 올리고 또 수책자도 왕, 대비전, 대왕대비전에게 朝賀한다.⁷⁾ <그림 1>은 효명세자책례도감의궤 반차도중 일부이다.

책봉례 거행시간이 되었을 때 御座를 대청마루 한복판에 마련했으며 왕세자가 七章服인 冕服 차림으로 나오자 필선(弼善)이 뜰 위에 마련된 判位까지引導한다. 교명, 죽책, 印綬를 받은 관원이 책상 위에도 올려 놓는다. 근시(近侍)와 執事官이 먼저 殿庭에 들어와 四拜를 올리고, 都提調 領議政이 교명이 든 상자를 받들어 近侍에게 주면 近侍가 그것을 꿇어 앉아서 세자에게 올리고 세자는 그것을 받아 兼贊善에게 준다. 都提調가 죽책 상자를 近侍에게 전하고 세자가 받아서 贊善에게 준다. 印綬 상자를 近侍에게 주니 다시 세자에게 올리고 세자가 賓客에게 준다. 禮曹定郎은 箋文函을, 濟用監 判官은 表裏函을 각각 받들어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 弼善이 꿇어 앉아서 그것을 받아 세자에게 올리면, 세자는 그것을 차례로 받아 近侍에게 주고 近侍는 받아 책상위에다 놓는다. 箋文을 王大妃殿, 中宮殿의 尙傳에게 올린다. 都監 도제조 이하 師父, 賓客, 贊善 모두가 拜位로 돌아와서 예를 마치고 도감의 도제조 이하는 모두 나가고 세자도 대내로 돌아온다. 그리고 왕세자 책봉례의 敎書를 頒布하고 사형수 이하의 雜犯들은 모두 죄를 면하고 官職에 있는 자들은 각각 한 자급씩 올려주어 모든 生命體는 다 함께 끝없는 壽를 누릴 것이며 모든 福이 온누리에 퍼지도록 하였다.⁸⁾

IV. 冊封儀式에 나타난 身分別 服飾

1. 受冊封者(孝明世子) 服飾

책봉시 왕세자의 복식을 살펴보면, 당시 왕세자 영(昞)은 세자 책봉 후 시호

7) 國朝五禮儀, 卷之 4 嘉禮, 冊王世子儀.

8) 正祖實錄, 24年 2月 2日條.



〈그림 2〉 칠장복의 면복을 착용한 효명세자 어진

는 효명세자가 되었고 현종 즉위 후 익종으로 추존되었으며, 책봉시 칠장복을 착용하였다. 면복을 착용한 상태로 그려진 유일한 유물인 면복 착용도는 팔류면(八旒冕) 칠장복(七章服)으로 〈그림 2〉 화면 우측 상단에 ‘익종돈문현무인의 효명대왕십팔세어진(翼宗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十八歲御眞)’이라고 표제되어 있다.⁹⁾

왕세자 영의 가례는 순조 19년(1819)에 치루었으며 이 때에도 칠장복인 면복을 입었다. 이 칠장복은 왕세자인 익종이 18세였던 순조 26년(1826)에 그려진 것으로 왕세자 신분의 면복을 입고 있다. 책례시의 면복과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왕세자 신분의 면복이므로 칠장복의 형제는 같았을 것이다. 효명세자는 4세에 책례를 치른 것으로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았으므로 면류관 대신 孝明世子冊禮都監儀軌의 儀註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쌍동계(雙童髻), 공정책(空頂幘), 칠장복(七章服)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⁰⁾

이 어진은 관례를 치른 후에 그려진 것으로 면류관을 착용하고 있으나 효명

9) 劉頌玉(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147.

10) 孝明世子冊禮都監儀軌 儀註.



〈그림 3〉 공정책 착용한 영친왕과 복원된 공정책 착용도

세자의 책례시의 관은 공정책이다. 〈그림 3〉 이는 역대 왕세자의 책례시 복식을 살펴 본 결과 관례를 치르기 전에 책봉의례를 치를 때는 면류관이 아닌 공정책임을 알 수 있다. 관례 전에 쓰는 공정책은 면판(冕版)이 없고 류(旒)가 없다. 모라(帽羅)로 싸고 순금으로 꾸미는데, 양쪽 옆에는 끈으로 된 주조(朱組)가 있다.¹¹⁾

책례시의 의복은 칠장복으로 이는 관례의 전, 후에 상관없이 입었던 것으로 〈그림 2〉 어진의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나 그 형태는 같았을 것이다. 의는 玄色이며 火紋이 어깨에 한 개 크게 그려져 있고 소매에는 화문을 작게 2개 그리고 그 밑에 화충(華蟲), 종이(宗彝)를 3개씩 그렸다. 상은 잘 보이지 않으며 혼색폐슬(纁色蔽膝)에 4장문의 수가 불탄 자리에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방심곡령(方心曲領)은 백색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 녹영(綠纓)이 늘어져 있다. 패옥(佩玉)이 옆에 보이며 적석(赤舄)을 신고 있는 모습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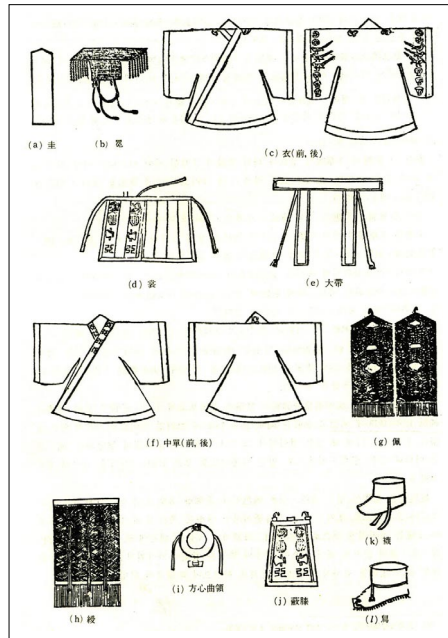
세종 28년과 32년에 왕세자의 면복을 명에 청하여 문종 즉위년(1451)에 명으로부터 왕세자의 면복인 팔류면 칠장복을 청사(請賜) 받았다.¹³⁾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의 왕세자 면복에 보면 면복은 팔류면 칠장복으로 규(圭), 면(冕), 의(衣), 상(裳), 대대(大帶), 중단(中單), 패옥(佩玉), 후수(後綬), 방심곡령(方心曲領), 폐슬(蔽膝), 말(襪), 석(舄)으로 구성되

11) 增補文獻備考, 제 79권 章服條.

12) 劉頌玉(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150.

13) 文宗實錄, 卷3 卽位年 9月條.



〈그림 4〉 국조오례의서례에 제정된 왕세자 면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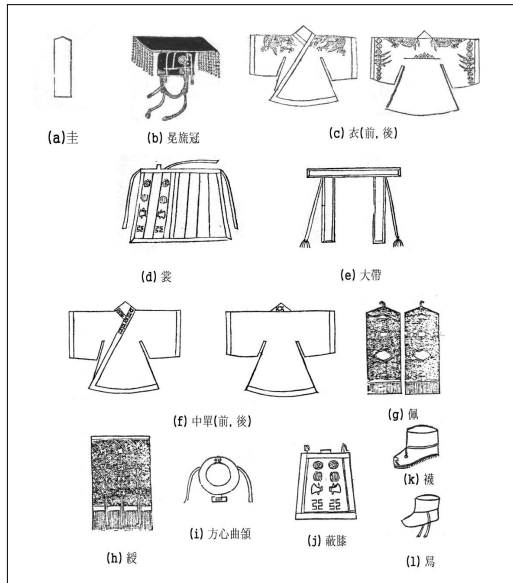
어 있다(그림 4).¹⁴⁾

익종의 어진은 8본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 처음에 그려진 어진이 상기한 면복 본으로 병술년(丙戌年)인 순조 26년에 경모궁 망묘류에 봉안됐던 것이다. 그 후 광무 3년에 익종은 문조익황제로 추존되어 광무 4년 이묘될 때 상단 표제 안쪽에 ‘문조익황제어진(文祖翼皇帝御眞)’이라고 씌여진 홍첩을 붙였다. 이 어진은 화폭의 우측이 6·25사변 때 절반 이상 소실되어 좌측만 남아 있으나 면복의 형태는 알아 볼 수 있다.¹⁵⁾

왕세자 툇의 가례는 순조 19년(1819)에 치렀고 어진은 순조 26년(1826)에 그려진 것이므로 가례시 입은 면복은 왕세자로 11세 때 입은 것이어서 그 7년 후에 그려진 어진의 면복과는 동일품은 아니나 같은 왕세자 신분으로 입은 면복이

14)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

15) 劉頌玉(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p.146-150.



〈그림 5〉 국조오례의서례에 제정된 왕 면복 도설

므로 모든 형제는 같았을 것이다.

2. 冊封子(純祖) 服飾

왕세자 책봉시 왕은 구류면 구장복의 면복을 착용한다. 면복은 왕이 가례(嘉禮；왕이나 왕세자 같은 왕권자의 혼례) 때 법복(法服)으로 입으며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낼 때 제복(祭服)으로 입었고 정조(正朝), 동지(冬至), 조회(朝會) 등 대례 때는 대례복으로 입은 왕의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왕권의 상징복이다.

면복의 구성은 구(圭), 구류면류관(冕旒冠), 현의(玄衣, 혼상(纁裳), 대대(大帶), 옥대(玉帶), 중단(中單), 패옥(佩玉), 후수(後綬), 폐슬(蔽膝), 방심곡령(方心曲領；대례복에는 제외), 적말(赤襪), 적석(赤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5〉는 국조오례의서례에 나오는 면복 도설이다.

현의에는 오장문을 그리며 혼상과 폐슬에는 사장문을 수놓는 구장복을 입는다. 〈그림 6〉은 면복 복원품이다.



〈그림 6〉 면복 복원품(유송옥, 1997)

3. 冊封儀式 參與者(都提調 및 文武百官) 服飾

冊封儀式 參與者의 服飾을 班次圖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맨 먼저 提調, 都廳, 郎廳, 監造官, 監役官, 都提調가 말을 타고 그 뒤를 김을 든 使令과 書吏가 따르고 있다. 伏馬와 儀仗差備가 좌우로 늘어서 있다. 다음으로 북을 든 金, 鼓와 駕龜休人旗, 靑蓋를 든 儀仗手가 중앙에 서 있으며 좌우로 翬扇2, 旌節1, 銀粒爪 1, 金粒爪 1, 銀粧刀 1, 金粧刀 1와 좌우로 銀鐙子 1, 金鐙子 1, 靑扇이 중앙에 2, 좌우로 말을 탄 月刀差備가 1, 麟旗, 白澤旗가 좌우로 1씩 있으며 玄鶴旗, 白鶴旗, 態骨朶, 豹骨朶가 마주하고 있고 좌우로 令字旗를 들고 있다. 闕闔馬 2와 輦를 메고 가는 12인과 輦을 호위하는 別監 10인이 있다. 그 뒤를 印馬와 平轎子가 뒤따른다.

褥席을 들고 가는 이 뒤로 排案床, 玉印彩輿, 褥席差備, 舉案差備가 있다. 2인 讀冊床 뒤로 竹冊彩輿가 따르고 敎命腰輿의 좌우로 鳳扇, 黑簋를 든 1인이 있으며 좌우로 말을 탄 烏杖差備가 있다. 뒤로 중앙에 악기를 든 典樂이 있고, 春景을 메고 있는 8인이 있고 좌우로 碧鳳旗 1, 朱雀旗 1, 銀鐙子 1, 銀橫爪, 金



〈그림 7〉 정원용 조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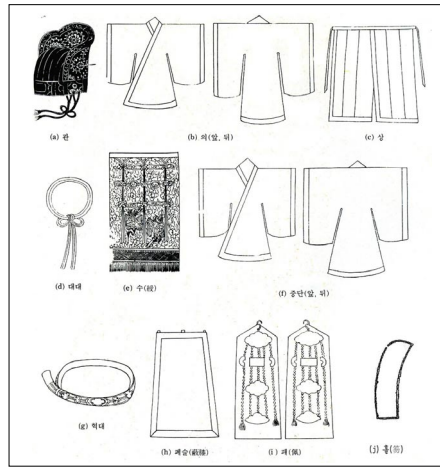
鎧子, 金橫爪가 마주하고 있으며 그 뒤로 金橫爪, 銀鎧子, 銀橫爪, 金鎧子가 마주하고 있다. 좌우로 金越釜 1과 赤扇 1이 따르고 있다. 劍을 든 使僉 3인과 말을 탄 堂部官 1인의 뒤를 樂工 14인이 따르고 좌우로 紅蓋, 白澤旗, 三角旗, 角端旗를 든 의장수가 뒤따른다.

가. 조복(朝服)

都提調는 朝服을 착용하고 책봉의식을 진행하였다. 朝服의 구성은 金冠(梁冠), 赤綃衣, 赤綃裳, 白綃中單, 赤綃蔽膝, 大帶, 革帶, 佩玉, 綬, 襪, 鞋, 笏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존하는 유물로 1783~1873년 사이의 鄭元容의 조복을 보면 赤綃衣는 깃, 도련 수구에 黑襟을 돌렸으며, 赤綃裳은 전 3폭, 후 4폭으로 흑선을 돌렸다. 정초중단의 도련과 수구에도 흑선이 둘러져 있다. 적초폐슬은 적초의 가슴에 붙어 있으며 역대에는 犀帶와 鶴頂金帶가 있고 수는 雲鶴金環綬이다, 笏은 象牙笏이다(그림 7).¹⁶⁾

금관(金冠: 梁冠)은 문무백관의 금관은 1품은 5량관, 2품은 4량관, 3품은 3량관, 4·5·6품은 2량관, 7·8·9품은 1량관을 썼다. 그리고 모두 목잠(木簪)을

16) 劉頌玉(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p.173-174.



〈그림 8〉 조복도

꽃았다.

적초의는 깃, 도련, 수구에 흑연(黑緣)을 둘렀으며 각 품이 동일하다. 적초상은 전 3폭, 후 4폭으로서 여기에 흑연을 둘렀으며 각 품이 동일하다. 백초중단은 기록에는 백초중단으로 되어 있고, 깃, 도련, 수구에 흑연을 둘렀으며 현재 유물은 백초가 아닌 청초중단만이 남아있다. 적초폐슬은 적초의와 같은 색으로 만들어 적초의에 부착하였다.

대대는 적백단 2색의 겹으로 된 것으로 그 표리(表裏)의 색과 대대를 맺는 유약(紐約) 즉, 조(組)의 색, 신(紳)의 길이로 계급을 표시하였으며, 현대는 품계에 따라 장식에 구별이 있었으니 1품 서대(犀帶), 정2품 삽금대(鎡金帶), 중2품 소금대(素金帶), 정3품 삽은대(鎡銀帶), 중3품 소은대(素銀帶), 4품 소은대(素銀帶), 5품에서 9품까지는 흑각대(黑角帶)이다.

패옥(佩玉)은 1·2·3품은 번청옥(番靑玉)으로 하였고 4품 이하 9품까지는 번백옥(番白玉)으로 하였다. 수(綬)는 수놓은 문양과 달아 놓은 환(環)으로써 품계를 가렸는데 1·2품은 황·녹·적·자 사색사(四色絲)로 운학문(雲鶴紋) 4쌍을 수놓았고 2개의 금환(金環)을 달았으며 3품은 같은 사색사의 반조문(盤鵬紋)에다 2개의 은환(銀環)을 달았고 4품은 황·녹·적 삼색사로 연작문(練鵲紋)을



〈그림 9〉 단령 착용도 김정희

하였고 2개의 은환을 달았으며 5·6품은 황·녹 이색사에 2개의 동환을 달았고, 7·8·9품은 황·녹 이색사로 계직문(鷄刺文)을 하였고 2개의 동환을 달았다, 그리고 청사망(靑絲網)을 밑에 맺었다.

말(襪)은 백포(白布)를 사용하였으며 각 품이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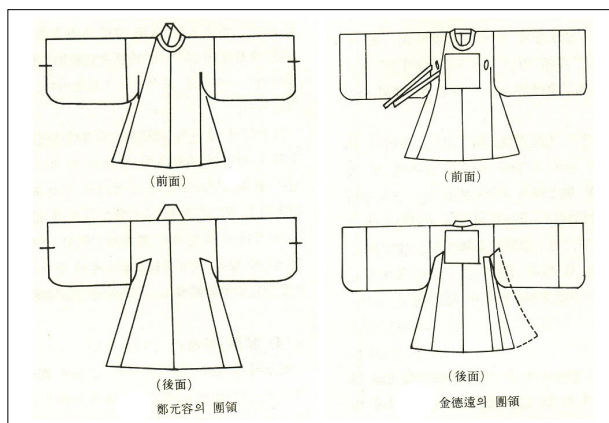
혜(鞋)는 각 품이 모두 흑피혜(黑皮鞋)를 신었는데, 후기에는 흑피화를 신기도 하였다. 홀(笏)은 1품에서 4품까지는 상홀(象笏), 5품에서 9품까지는 목홀(木笏)이었다(그림 8).

제조, 도청, 낭청, 監造官, 監役官, 집사, 차비들도 금관조복을 착용하였다.

나. 단령

단령은 목둘레가 둥근 포로서 文武百官들의 公服이나 常服으로 입는 관복이다. 『經國大典』에 관복구조를 보면, 공복으로 일품에서 정삼품까지는 紅團領을, 종삼품에서 육품까지는 靑團領을, 칠품에서 구품까지는 綠團領을 입었다. 常服으로는 각 품의 團領色이 공복과 같으며, 일품 文官은 공작흉배(孔雀胸背), 武官은 호표흉배(虎豹胸背)를, 이품문관은 운안(雲雁), 무관은 호표흉배를, 삼품 문관은 백한(白鴈), 무관은 웅비흉배(熊羆胸背)를 달게 되어 있다(그림 9).¹⁷⁾

17) 經國大典, 冠服構造.



〈그림 10〉 단령 도해

出土服飾에서 團領의 形態變遷을 살펴보면, 동근 목둘레의 團領은 문무관들이 관복으로 입던 포(袍)인데 그 속에 직령(直領)으로 된 이의(裏衣)를 별도로 만 들어서 표의(表衣)인 단령(團領)에 끼워 입었다.

관복의 형태변화를 보면, 宣祖代에서 光海君代까지의 관복소매는 수구(袖口) 쪽으로 오면서 약간 넓어지지만 비교적 좁은 소매이던 것이 仁祖, 肅宗代에 와서는 대수(大袖)로 두리소매가 된다. 〈그림 10〉은 출토 단령 중 정원용과 김덕원 단령의 도해이다.

반차도의 當部官은 紗帽에 단령을 입고 말을 타고 있다. 儀仗郎廳은 幘頭에 단령을 입고 말을 타고 있다. 서리는 무각 平頂巾에 團領, 條兒를 띠고 있다.

다. 첩릭(帖裏)

使令의 복식은笠에 帖裏를 입고 검을 차고 있다. 帖裏란 조선시대 文士의 便服으로, 燕服의 上衣로, 朝服의 中衣로도 입혀졌다. 또한 戎服으로도 착용하였다.

첩릭은 첩리라고도 부르며 의상연의로서 상의와 하상을 재단하여 연결시킨 의복이므로 용사에 입하기에 매우 간편한 의복이기 때문에 융복으로 오래 사용되었다(그림 11).



〈그림 11〉 철릭

또한 철릭은 의상연의라는 점에서 심의의 제도인 의상연의와 비슷한 형태인데 철릭은 상에 주름잡아 의에 붙인형 즉, 플리스 스커트를 바디스에 연결한 원피스형이고 심의는 고어 스커트를 바디스에 연결한 원피스형으로서 철릭은 융복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심의는 문사(文士)들의 의복으로 많이 사용되었다.¹⁸⁾

대로는 홍색 광다회(廣多繪)를 띠고 병부(兵符)를 차고 호수(虎鬚)를 장식한 주립(朱笠)을 썼다.¹⁹⁾

철릭 색에 대하여는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당상관은 감색, 당하관은 현색, 교외 동가시에는 홍색 철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조 34년에는 당하관은 홍색을 청색으로 개정하고 있어 색은 시대와 신분에 따라 다르다.²⁰⁾

라. 흑의(黑衣)

더그레 흑은 호의(號衣)라고도 하는 옷으로서 各營門의 軍士, 馬上才軍, 司諫院, 喝道, 義禁府 羅將들이 입던 세자락 옷이다. 軍士와 馬上才軍의 것은 소매가 없고 喝道와 羅將의 것은 짧은 소매가 있었으니 곧 快子의 一種인 것이다.²¹⁾

18) 劉頌玉(1984).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 본 남자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160.

19) 劉頌玉(1982). 사례복식, 한국의 복식, 문화재대관, pp.257-230.

20) 劉頌玉(1998). 「한국복식사」, 수학사, p.237.

21)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42.



〈그림 12〉 흑의

「국학도감」에서 具軍服을 보면 戰服에 답호와 號衣를 들고 있다.²²⁾ 이렇게 군사들이나 마상재군이 용이하게 입을 수 있는 더그레는 소매가 없는 경우에는 號衣, 戰服, 快子, 답호 등과 같을 것이며, 소매가 짧게 붙어있는 것이라면 반비(半臂)와 비슷한 옷일 것이다.²³⁾ 〈그림 12〉은 흑의이다.

別監은 阜巾에 黑衣를 착용하고 있다. 羅將은 皮帽에 半臂衣를 입었다.

V. 結 論

조선왕조 책봉 의식은 왕세자를 비롯하여 왕세손, 왕세제,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의 책봉의례가 있다. 책봉을 하기 전에 먼저 책봉사를 두어 중국에 보내어 책봉 사실을 알리면, 중국으로부터 칙사가 禮緞과 함께 칙서를 가지고 와서 왕께 전한다. 칙서를 받고 책봉사를 보낸 후 왕은 도제조 이하 3인의 제조, 6~7인의 都廳, 郎廳을 통하여 교명, 죽책, 印綬를 왕세자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책봉례가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조선의 책봉례는 자국의 책봉 의식으로 행하여졌다. 효명세자의 책봉례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해졌다.

책봉시 수책봉자인 왕세자는 공정책에 칠장복을 입었다. 책봉자인 왕은 구장

22) 이종훈, 국학도감, 軍服.

23) 劉頌玉, 『朝鮮時代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154.

복을 입었다. 왕명을 받들어 교명, 죽책, 인수를 전하는 책봉자의 복식은 도제조, 제조, 도감, 도청, 낭청, 監造官, 監役官, 집사, 차비는 금관 조복을 입었으며 당부관, 의장낭청, 서리는 단령을 입었다. 사령은 철릭을 입었다. 별감은 흑의에 조건을 착용하였다. 의장수들의 복식은 피모자에 청의나 홍의를, 조건에 청의를 착용하였다. 왕세자의 輦를 메고 가는 자들도 조건에 靑衣를 입었다.

■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卷之 4 嘉禮, 冊王世子儀.

『國朝五禮儀序例』, 祭服圖說.

『經國大典』, 冠服構造.

『文宗實錄』.

『續大典』 禮典 儀章條.

『純祖實錄』.

劉頌玉(1982). 사례복식, 『한국의 복식』, 문화재대관.

劉頌玉(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劉頌玉(1998). 『한국복식사』, 수학사.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중훈. 『국학도감』, 軍服.

『增補文獻備考』, 제 79권 章服條.

愼鏞廈(1983).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解題, 서울大學敎圖書館.

『孝明世子冊禮都監儀軌』 儀註.

『正祖實錄』.

朴銀順(1993). 조선시대왕세자책례의궤반차도연구, 『한국문화』, 14.

劉頌玉(1984).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 본 남자포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song-ok Ryu(1997). A study on the costume of crown prince at the designation ceremony in chosun dynasty. The 16th International costume congress.

Ryu kyu convention center, japa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stume.
7, 29-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논문투고일	10월	30일
심사일	11월	5일
심사완료일	11월	20일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Crown Prince Hyo Myung at the Designation Ceremony in Chosun Dynasty

Songok Ryu

President

Korea Royal Costume research Institute

It is notable that Chosun Dynasty has witnessed no crowning of a king because crown prince who had already been designated as next king automatically got throne when the former king passed away or got into the similar crisis. So designation of a crown prince as the next king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and endowment of a special title(位號) for him was to secure public endorsement. It was considered very important. Necessarily, the ceremony for this event was grand.

The ceremony was a backbone of inheritance and consolidation of kingship, so it was arranged as a great national feast. Records of each ceremony were cautiously kept and the costume in the ceremony became a sort of prototype for the needs in the future of the kingdom. Manual for the ceremony of designation of crown prince(王世子冊禮都監儀軌) that recorded details of the ceremony and its procedure is an invaluable material that we can share now.

In Chosun Dynasty, they have designation ceremonies for crown prince, eldest son of crown prince, brother of crown prince, princess, consort of crown prince, and consort of son of crown prince. Among them the designation ceremony of crown prince got the utmost importance. Before the designation, an envoy extraordinary was sent to China for the notification of the ceremony for crown prince, then a special envoy from Chinese Emperor visited King of Chosun with an approval letter for the designation and Emperor's presents. Through the hands of three high rank officials headed by the executive chief(都提調) of the ceremony committee, the king endowed the writ of appointment, the plate of designation and royal jade seal to the crown prince.

The head official wore a full ceremony. It consisted of a black cap made of gold wired gauze, red dress suit, red lower cloth, white gauze undercloth, red silk gauze knee cover, wide silk belt rhinoceros horn belt, jade accessories attached to belt and embroidery decoration gung on the back of silk belt. Each of the other official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lso wore the similar costume.

Keywords: Manual for the ceremony of designation of crown prince(왕세자책례도감의궤-王世子冊禮都監儀軌), designation ceremony of crown prince(왕세자책례-王世子冊禮), executive chief(도제조-都提調), writ of appointment(교명-敕命), plate of designation(죽책-竹冊)